미국인 언론 신뢰 역대 '최저'

미국에서 신문과 방송 뉴스 등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하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가 18일(현지시간)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전날, 지난달 1~20일 미국의 성인 1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만이 신문을 매우 혹은 상당히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갤럽이 1973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2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신문에 대한 신뢰도는 21%였다.

방송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11%로 한층 더 낮았다. 이 역시 1991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저치로, 지난해(16%)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 신뢰도 차이는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층의 경우 신문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35%가 신문을 매우 혹은 상당히 신뢰한다고 밝혔고, 무당층은 12%가 신뢰를 보냈다.

방송 뉴스 역시 공화당 지지층의 6%만이 신뢰했고, 민주당과 무당층은 각각 20%와 8%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 모두에서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낮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신뢰도가 상승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라고 지적했다.

사진=shutterstock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낙태약 수요 '껑충'

미국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19일 '연합뉴스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낙태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원격의료 스타트업 헤이제인(Hey Jane)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를 헌법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며칠간 홈페이지 접속이 전달과 비교해 거의 10배 늘었고 환자 수요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낙태약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료소 초익스(Choix)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당일 홈페이지 트래픽이 600%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기업은 현재 4개 주에서 영업하지만, 2023년 말까지 낙태가 가능한 모든 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낙태약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저스트더필(Just the Pill)은 판결 전에는 하루 16건 수준이었던 상담 예약이 지금은 하루 2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낙태를 금지한 주에 거주하는 환자가 낙태를 위해 주 밖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주 경계에서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는 업체도 낙태를 금지한 주의 거주자에게는 약을 팔 수 없지만 외국 업체는 이같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인도에서 낙태약을 배송하는 에이드엑세스(Aid Access)는 낙태를 금지한 주로도 낙태약을 보낼 수 있으며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배송 요청이 하루 600~700건에서 4천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shutterstock

후버댐 폭발 사고 … "전력망 위험 없어"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있는 후버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화염과 시커먼 구름이 치솟고 일부 수력발전 시설이 파손됐다.

사고는 19일 오전 10시경 댐의 터빈실에서 발생했다.

후버댐을 운영하는 연방 재개발사무국의 지역 감독관 재클린 L 굴드는 "후버댐의 A5 변압기에서 오전 10시경 불이 났고 현장 사무국 소방단이 약 30분만에 완전 진화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발전소에서 전력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전력망에는 어떤 위험도 없다." 고 밝혔다.

이날 한 관광객의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보면 콜로라도강의 애리조나 방면 터빈실에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치솟고 겁에 질린 관광객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다.

후버 댐 공사로 생긴 인공호수인 미드호는 이 지역 일대의 극심한 가뭄으로 역사상 최저 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발전량이 감소한 것이 이번 화재와 연관이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당국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후버댐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에 건설됐고 미국 최대 인공호수인 미드호에 물을 공급한다. 미드호는 LA, 샌디에이고, 피닉스, 투손과 라스베이가스를 포함한 2,500만 명의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후버댐은 또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등 3개주에 전력을 공급한다.

사진=tiktok(iris_jaded)

낱말퍼즐 정답

■	[1]굴	욕	■	■	■	[2]고	[3]민
[4]말	뚝	■	[5]인	간	[6]미	■	둥
주	■	■	지	■	[7]풍	[8]악	산
[9]변	[10]산	반	도	■	■	바	■
■	발	■	■	[11]시	나	리	[12]오
[13]유	적	[14]지	■	쳇	■	■	륙
가	■	[15]조	랑	말	■	[16]세	도
[17]족	발	■	■	■	[18]추	월	■

숫자퍼즐 정답

1	4	7	2	5	8	3	6	9
9	2	3	1	4	6	5	7	8
5	6	8	3	7	9	1	2	4
2	1	5	9	3	7	4	8	6
3	7	4	8	6	2	9	1	5
8	9	6	4	1	5	7	3	2
4	3	2	5	8	1	6	9	7
6	5	9	7	2	3	8	4	1
7	8	1	6	9	4	2	5	3